

##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의 영양섭취에 대한 연구

고신대학교·복음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 
강 수 만, 이 철 수

현대사회에 들어와 암 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암이 국내 5대 사인 중 1위를 차지하였다. 또한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암이라고 진단 받은 후 많은 환자들이 죽음과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. 방사선 치료는 최근에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, 많은 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치료부위에 따라 환자의 전신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며, 방사선치료가 진행됨에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

방사선치료를 앞두고 있는 암 환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, 정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, 본 연구는 199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부산광역시 K의과대학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난 입원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암 환자의 영양섭취의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환자치리에 도움을 주고자한다.

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50세미만이 40%(24명) 50세 이상 군보다 적었고, 남자보다 여자가 65%(39명) 많았으며 미혼보다 기혼이 93.3%(56명) 교육 정도에는 고졸 이하가 52.7%(31명)이고, 주거형태는 시거주자가 76.7%(46명)로 나타났다. 치료방법은 약물요법 + 방사선요법 35%(21명), 수술요법 + 방사선요법 28.3%(17명)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부위는 흉부, 복부, 골반부위가 70.1%(42명)으로 가장 많았다. 방사선치리에 관한 정보 및 태도를 보면 현재의 병을 진단 받기 전에 방사선치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80%(48명)이었고, 방사선 치료 전에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3.3%(38) 환자들에게 영양섭취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, 병에 대한 예후는 60%(36명)이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.

방사선 치료 이후 경험증상은 피로감 및 식욕감퇴, 오심, 구토, 소화불량, 체중감소, 설사, 현기증, 피부변화, 수면장애, 통증, 변비, 구내염, 기억력감퇴, 탈모 등의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났다. 영양섭취에 대한 조사에서 식사를 잘못하고 있다, 전혀 못하고 있다가 68.3%(41명),이었고 잘못하는 원인은 식욕저하, 치료부위의 통증, 식성에 맞지 않아서가 68.3%(41명), 전문의 및 영양사의 식단교육은 받지 않았다가 73.3%(44명)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영양상태에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.

병원 치료 외의 민간요법을 사용유무는 대상자의 58.3%(35명)이 병원치료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41.7%(25명)은 한방치료(침, 뜸) 식이요법, 기요법, 면역요법 등을 병용하고 있었다. 그 방법은 식이요법(보약포함) 및 버섯류가 가장 많았다. 식이 요법 등에 사용되어진 경비는 평균 약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고신대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ksm2580@hanmail.net